

아제르바이잔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09. 4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7
V. 우리나라와의 관계	8
VI. 종합의견	9

아제르바이잔

I. 일반개황

면적	87천 km ²	GDP	411억 달러(2008년)
인구	8.70 백만 명(2008년)	1인당 GDP	4,724 달러(2008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Manat('93.1.1 도입)
대외정책	대서방 관계강화	환율(달러당)	0.82

- 1991년 독립이후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소수 권력층과 일부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.
-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제2차 세계대전중 히틀러가 '바쿠를 점령하라'고 했을만큼 석유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았고 노벨이 1900년대 초반 석유개발로 큰 돈을 벌어 노벨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.
- 카스피 해 연안의 요충지에 위치한 데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및 경유지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 부각
- 친서방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, 러시아, 이란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-카라바흐 영토분쟁이 미해결 상태

II. 경제 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
경제성장률	10.2	26.2	34.5	25.0	10.8
재정수지 / GDP	-2.6	-2.3	-4.6	-6.2	-7.2
소비자물가상승률	6.8	9.6	8.3	16.7	20.8

자료 : IFS 및 EIU

□ 경제성장률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

- 2005-2007년 기간중 20-30%대를 구가하던 경제성장률이 2008년 하반기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10%대로 떨어지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. 동국의 경제는 석유 수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, 2009년에도 유가하락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2.5% 수준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 크게 낮아질 전망

- 2008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 투자자금 대거 유입, 재정지출 증가,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약 4% 포인트 증가하여 20.8%를 기록하였음.

-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, 상품가격 하락 및 통화량 공급 축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.4%로 크게 낮아질 전망

□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,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

- 유가상승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났으나, 정부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 투자를 늘림으로써 재정적자가 지속 확대되어 왔음.

- 2009년에는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재정수지/GDP 변동추이: -2.30%(2005) → -7.20%(2008) → -10.4%(2009^e)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□ 석유·가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

- 석유·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, 서비스업,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,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붕괴된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부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.

- 에너지부문이 수출의 95%, GDP의 50%, 재정수입의 60%를 차지할 만큼 산업구조의 편중이 심해 구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성을 안고 있음.

□ 풍부한 에너지 자원 보유

- 카스피해 지역은 중동,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매장지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1년 독립이후 거대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석유·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- 석유 매장량은 70억 배럴, 천연가스는 45.13조ft³로 확인되고 있음(2007년 말 기준).

□ 유럽시장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가능성

- 세계 최장 BTC송유관(아제르바이잔 Baku-그루지야 Tbilisi-터키 Ceyhan, 수송능력 100만 b/d)을 통해 2005년부터 원유 공급을 시작하였음.

- 2006년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본격화한 SCP(South Caucasus Pipeline) 가스관은 Baku-Tbilisi-터키 Erzurum를 관통하며, 연간 80억m³의 수송능력을 가짐.

- 현재 신규로 추진중인 Nabucco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면, 동국은 장기안정적으로 가스 수출을 증대시키고, 통관료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.

□ 과도한 정부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확대

- 정부는 석유수출로부터 오는 막대한 외화수입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지출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하였음. 정부지출의 증가는 외환 유입증가와 함께 통화량 급증시켜,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.8%로 급등하였음.

□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 (SOFAZ) 운용

- 동국은 에너지 수출관련 수입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SOFAZ를 운용하고 있음. 동 기금은 2007년 말 기준 25억 가량 달러 축적 되었고, 이는 인프라 구축과 빈곤개선,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이용됨.

□ 지방 인프라 시설 구축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

- 석유 및 가스산업으로 부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, 정부주도로 사회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. 이를 위해 지방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부문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.

- 동국은 지난 5년 내 경제가 2.6배 성장하고 일자리가 76만개 늘었으며, 최소임금역시 8.3배 증가하는 등 개발 계획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3>

주요 국제경제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
경 상 수 지	-2,589	167	3,708	9,019	16,903
경 상 수 지 / G D P	-29.9	1.3	17.6	90.7	41.1
상 품 수 지	161	3,299	7,745	15,224	25,466
수 출	3,743	7,649	13,015	21,269	32,962
수 입	3,582	4,350	5,269	6,045	7,496
외 환 보 유 액	1,061	1,164	2,485	4,263	6,466
총 외 채 잔 액	1,949	1,815	1,900	2,300	2,997
총외채잔액 / GDP	22.2	14.0	9.2	8.3	7.3
D. S. R	5.8	3.0	1.9	1.4	0.9

자료: EIU, IMF

□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되나,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대폭 감소 예상

- 2008년에는 서비스 및 소득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최근 5년 내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(경상수지 흑자규모 : 169억 달러, GDP의 41.1%).

-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기인한 것으로 2009년에는 유가약세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됨으로써 경상수지는 흑자폭도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환보유액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

- 고유가 상황에서 지속된 석유수출 증가로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까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, 2009년에는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.

※ 2008년 외환보유액 : 약 65억 달러, 2004년 대비 5배 이상 증가

□ 양호한 외채규모

- 동국은 본래 외채규모가 크지 않고 변동도 심하지 않은 편이며, 2008년말 총외채잔액은 30억 달러로 GDP 대비 7.3%에 불과한 수준임.

□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

- 외채규모가 크지 않은데 비해 최근 수년간 석유 및 가스의 대폭적인 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(2008년말 65억 달러)이 크게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 및 국제관계

□ 헌법 개정안 통과로 알리에프 장기집권토대 마련

- 야당의 국민투표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에 3선 금지 조항을 없애는 헌법개정안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함으로써,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(47)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.

□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외교

-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적으로 친서방 경향을 띠고 있으나,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들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함.

- 서방은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를 확보,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면서 동 지역의 원유와 가스를 러시아를 우회해 서방으로 수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송루트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, 동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.

-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 협력 주도권을 서방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, 08년 7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동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 노력을 벌이고 있음.

□ 주변국과의 관계

- 그루지야-러시아 전쟁 이후 카프카스지역의 투자매력도가 감소했다는 판단 하에 알리에프 대통령은 카리모프 우즈베크 대통령을 초청하여 정보통신과 철도수송, 무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
- 터키는 아르메니아와 오랫동안 국교를 단절하였으나, 최근 들어 '해빙'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과는 에너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긴밀한 관계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2. 사회 및 소요사태

□ 카라바흐 지역 분쟁 재발 가능성 존재

- 카라바흐 분쟁은 1994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단락 되었으나,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8년 재선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토통합성을 전제로 아르메니아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분쟁 재발 가능성이 대두됨.

IV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1. 주요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

○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동국에 대한 신용등급은 변동이 없음.

- S&P : 신용등급 없음.
- Moody's: Ba1('06.9)
- Fitch: BB('04.11)→BB+('07.2)

- OECD : 6등급 ('06.1) → 5등급('06.6)→ 5등급 ('09.1)
- I.C.R.G : 54/140('08.11)→ 47/140('09.2)
- Euromoney: 71/185('08.3)→ 72/186('09.3)
- I.I. : 80/174('07.9)→ 79/177('08.9)

2. 주요 ECA의 인수태도

- US Eximbank: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,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
- Atradius: 승인신용장에 대한 인수 가능, 재량한도 없음.
- ECGD: 중단기 인수가능
- Hermes: 제약조건 있을 수 있음.

3. 외채상환실적

□ 양호한 외채규모와 외채구조

- 정부의 신중한 외교정책으로 외채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, 대부분이 양허성이거나 그에 가까운 조건의 차관임. 전체 외채의 40%가 IMF와 World Bank의 차입금이며,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나가고 있음.

□ 외채상환 능력 충분

- 총외채잔액의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석유수출로 급격히 증가하여 외채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으므로, 채무불이행 선언 등의 급작스런 태도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.

V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은 매년 일정치 않으며,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규모도 7건, 2.4백만 달러로 크지 않음

-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액은 25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95.5% 증가하였으며,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, 합성수지, 건설광산기계임.
- 2008년 수입액은 1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96.1% 감소하였으며, 주요 품목은 알루미늄임.

□ 최근 한국-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강화

- 2007년 4월 알리에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 및 에너지·인프라 건설 등 총 15건의 계약(MOU 포함)이 체결돼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.

- 2008년 5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쌍방향 자원외교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, SK C&C,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사업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.

VI. 종합의견

- 정치적으로는 2009년 3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3선 금지를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알리에프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 토대가 마련되는 등 국내정치 불안요인은 크지 않음.

- 경제적으로는 석유가스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 등 최근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됨으로써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, 외채규모가 작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- 다만,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아르메니아와의 영토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장기적인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,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균형외교가 실패할 경우 양국으로부터 모두 소외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.

- 이러한 동국의 정치·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C3(44.68) 등급으로 부여코자 함.

전문연구원 고 안 나 (☎02-3779-5654)

E-mail : anna@koreaexim.go.kr